



# 여름철의 소음공해

조일성/ 본협회 홍보부장

지구의 온실효과와 오존층의 파괴로 인해 기상 이상난동현상을 보인지 벌써 오래전이고, 올해 여름은 무척 덥고 길 것이란 기상대 예보도 있었다.

이처럼 더운 여름철이면 문이란 문은 모조리 열어두어 시원한 바람이 사방팔방으로 잘 통하게 해야 짜증스런 무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열어둔 문으로 시원한 바람줄기만 들어 오는게 아니라 거리의 소음을 함께 몰아 오는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소음이란 문자 그대로 공장, 건설작업이나 각종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시끄러운 음으로, 수면을 방해하고 대화를 방해하는 등 생활환경을 위협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 좋지않은 소리 」 「 없으면 좋을 소리 」이다.

게다가 요즘 들어 공장의 소음 이외에도 음식점 등의 영업에 따른 심야소음, 골목길을 누비며 확성기를 틀어대는 상업선전방송 등도 주변소음으로 한몫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소음은 공해진정의 약 절반을 차지할만큼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공해로서 그 피해가 단기적으로는 짜증, 불쾌감, 스트레스 등이 나타나고, 심하면 생리불순, 고혈압, 청각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소음은 발생 하자마자 단시간에 소멸되는 일과성을 가지므로 축적되지는 않지만 「 좋지않은 소리 」 「 없으면 좋을 소리 」이듯 심리적인 상태와 개개인의 감각에 따라 각각 다른 것이 소음의 특징이고 보니 이런 점들이 소음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소음공해는 크게 자동차, 항공기, 철도 등의 교통소음, 확성기 등의 생활소음, 공사장소음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소음에 장시간 또는 강한 소음에 단시간이라도 폭로되면 어떠한 형태로든 인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영향은 소음의 성질(크기, 높이, 지속시간



등), 작업내용, 생활환경, 개인적인 상태(나이, 성격), 건강상태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대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몇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 첫째, 청력에 미치는 영향

소음이 심한 전차를 오랜시간 타게 되면 내릴 때 귀가 멍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빠른 시간내에 회복이 가능하다. 그러나 오랜시간에 걸쳐 되풀이되는 강한 소음에 폭로되면 영구히 청력이 약해지게 된다.

#### 둘째, 청취방해

시끄러운 곳에서는 대화가 힘들게 되고, 전화 통화, TV시청이 어렵게 되는 경우를 자주 경험하게 된다. 이런 현상은 듣고자 하는 소리를 몇 가지 다른 소리가 상호 방해하여 듣기 어려운 상태를 만들기 때문이다.

#### 셋째, 수면방해

소음으로 인해 취침이 어렵다든가, 수면이 깊은 상태에서 얇은 상태로 만든다든가, 잠이 깬다든지 하는데, 이것은 소리의 자극이 뇌의 감각중추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대체로 40dB 이상의 소음에 폭로되면 수면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한다.

#### 네째, 작업능률의 영향

소음때문에 작업능률이 저하된다. 단순한 반복 작업이나 육체노동을 하고 있을 때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복잡한 사고와 기억을 요하는 작업일 때는 방해받기 쉽다. 또한 간헐적이거나 돌발적인 소음일 때는 정상적인 소음보다도 작업을 방해받기 쉽다.

#### 다섯째, 생리기능에 미치는 영향

소음에 장시간 폭로되면 고혈압, 식욕부진, 스트레스 등을 일으키고 심하면 생리불순, 청각장애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 환경청이 발표한 조사자료를 보면 작년 한햇동안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전국 5대도시의 녹지와 주거지역에서 이미 환경기준을 넘어섰고, 상업·공업지역의 경우 대전과 대구만이 환경기준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변지역의 경우엔 대구를 뺀 4대도시가 녹지, 주거지, 상업, 공업지역 등 모든 지역에서 밤낮으로 환경기준 이상의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일부 도시의 도로변지역주민들은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의 심한 소음에 폭로되어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처럼 대도시의 도로변지역주민들이 소음공해에 시달리는 것은 소음공해의 주역이 자동차 등의 교통소음으로써, 자동차대수가 65년 4만대에 달하던 것이 작년말 현재 2백만대를 돌파하면서 4년마다 2배꼴로 급증해왔고, 앞으로도 가속화될 전망을 보여 소음에 노출된 일반시민들에 대한 보호책이 막연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폭주하는 교통량에 대비해 주요소음지역에 방음벽 설치를 서둘러야 하며, 건설공사현장이나 공장소음, 음식점 등의 영업소음, 확성기 등으로 인한 생활소음을 줄여나가 짜증스런 무더위를 시원하고 현명하게 보내야 하겠다. \*